



## 無痛性 심근경색증, 고령자에 많이 발생

최근 일본에서는 가슴의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무통성(無痛性) 심근경색증이 고령자일수록 발증하기 쉽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근경색은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이 괴사를 일으키는 병으로 이같은 사실은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가 1987년부터 스이따(吹田)市 전주민을 대상으로 순환기질환 실태를 조사하고 추적조사를 하여 나타난 87, 88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것.

즉 심근경색환자 1백 53명중 흉통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는 1백 39명이었고 이중 흉통이 있었던 사람은 1백 16명, 없었던 사람은 23명으로 무통성환자의 비율이 17%였다는 것이다. 이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는 통증을 동반한 환자뿐이었지만 무통성 환자는 50대에서 5%, 60대에서 21%, 70대에서 14%, 80대에서는 50%에 달해 고령이 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가슴의 통증이 없어도 팔이나 턱 등에 통증이 있었다거나 허탈상태를 보였던 환자는 일단 심근경색을 의심해보고 반드시 심전도체크를 하

여 조기치료의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건강 기록한 「휴대용 Karte」 보급 검토

日 후생성,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건강 향상위해

고성능 IC를 심어넣은 작은 카드에 과거의 질병 등 환자의 진단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기록한 「휴대용 Karte」를 만들어 진단에 이용하려는 실험이 준비중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한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고혈압 같은 만성병에 걸려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IC카드를 배포하여 주소, 성명, 혈액형 등의 기본정보나 과거의 병력을 기록한다는 것.

후생성에서는 1987년 IC카드를 이용한 소규모 보건의료시스템을 약 5백명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 그 결과 카드를 이용한 이들 대상자의 95% 이상이 건강이 향상되어 이번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보급시킬 수 있는 가능성부여를 판단하여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 실험을 거쳐 현실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